복야공파 2026년 종무위원 회의



안동권씨 복야공파(회장:권영상)는 지난 10월 7일 10시 30분 파종회관에서 2026년도 종무위원 회의를 원근각지에서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종무위원 등 10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권석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종무위원 회의는 내빈소개, 개회, 국민의례, 시조묘소 및 파조단소 망배, 상읍례, 회장 인사, 종무 및 재산현황보고, 안건처리, 복야공파지 편찬 사업 추진 촉구 등 종무협조사항 설명과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내빈으로는 권영상 회장을 비롯한 권계동·권기호·권세목 고문, 권오극 자문위원, 권오익 대종회 사무국장, 권갑현 복야공파지 편찬위원장, 전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권광택 전 도의원, 권영현 부산종친회장, 권대일 대구파친회장, 권성규 합천종친회장, 전주 권경수 부회장, 익산 권오달 종무위원, 밀양 권영근 부회장, 산청 권유현 부회장, 창원 권기석 부회장, 영주 권혁태 부회장, 포항 권오창 종무위원, 제천 권기태 부회장, 영덕 권오화 종무위원, 예천 권기진 부회장, 봉화 권오영 부회장, 의성 권오덕 부화장, 영천 권기헌 부회장, 청송 권오대 종무위원 등 각 지역에서 많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권영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가을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 데도 뜨거운 애족심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금년 한해도 최장기간의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가뭄으로 온 국민이 힘든 한해였다고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파종회에서는 숭조이념의 확립과 애족사상 고취를 위해 소임을 충실히 해 왔다면서 특히 안동청장년회에서 주관하여 파조님의 묘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벌초를 하였는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종중의 역할은 묘역의 수호와 관리, 제례를 정성껏 모시면서 우리의 뿌리를 대대손손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야공파의 역사서인 파지의 편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자료가 늦어지는 문중은 편찬위원장과 수석부회장이 직접 출장 방문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을 하였다. 앞으로도 파종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애족심을 드높이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권계동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족친 분들을 뵈니 감개무량하다면서 과거에는 권가들이 숫자도 물론 많았지만 족친 모임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하시면서 복야공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회장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애족심을 고취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안건처리가 있었는데 상정된 안건은 파조 부군 추향봉행 건으로 논의한 결과 도유사 종만(안동 가일문중), 아헌관 영탁(안동 도촌문중), 종헌관 영범(산청 종정공계), 축관 광훈(청주), 찬자 도현(안동 광풍당문중) 등 5집사와 제유사 기석(부천), 혁용(강릉), 석재(산청), 영호(안동), 명순(안동) 등 다섯 분을 모두 선정하고, 추향예산(안)은 448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석순 사무국장은 복야공파지 편찬사업 추진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임원 확충 방안 강구, 각종 행사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임원단 순회간담회 실시, 파종회보 발간, 임원회비 납부 촉구 등 파종회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나고 온 변상경 해양학 박사가 1시간에 걸쳐 특강을 실시하였다. 강의는 "국운을 바꾼 해전 – 대한해협해전"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는데, 요약해보면 "6·25전쟁과 명량대첩을 설명하면서 제해권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6·25전쟁은 백두산함 구입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승리를 이끌었고,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또한 13척의 배로 왜선 333척을 울돌목으로 유인하여 크게 승전한 것은 울돌목의 해양환경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위대한 해전의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다수 족친들이 몰랐던 부분이라 금번 특강을 통해 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는 좋은 강의 였다고 큰 박수를 받았다.

특강을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고 파종회 권기욱 부회장(우평건설 대표)이 협찬한 기념타월을 참석자 모두에게 주고 회관 옆 제비원축산가든으로 이동하여 불고기와 팥찹쌀떡을 곁들어 점심을 맛나게 하고 기분 좋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권석순 복야공파종회 사무국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파(靑坡) 권영익 고문 별세





청파 권영익(權寧翼, 추밀공파, 34世) 고문께서 10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아들 권오태씨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대종회에 가기로 약속했으니 대종회에 가야겠다고 하더란다. 고인의 고향은 김포이다. 안동권씨 김포화수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지냈다. 저서 〈풍류의 흔적〉 자서(自序)에는 인생을 회고하는 글이 실려 있다. 정치에 입문하여 민자당김포지구당 운영위원장, 종군기자 활약, 항도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하여 후진 육성에 불태운 60대 등이다. 그 중에 문중의 유일한 원로단체인 안동권씨기로회장을 역임했고, 2003년도엔 안동권씨대종회 부회장으로서 미력이나 종론을 통일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회고한다. 뿐만 아니라 고인은 안동권씨 중앙종친회 사무총장과 충장공 권율장군 기념사업회장도 맡아서 숭조돈목을 위해 애쓰셨다. 권해옥 회장 재임 시에는 수석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고인은 평소 안동권씨종보는 방방곡곡 족친들 상호간에 소식과 조상의 위대한 업적, 일가간에 돈목을 도모하고 있으니 우리 권문의 경사이며 자랑이라고 말했다. 6.25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이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을 받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혁창 제례위원장 별세



권혁창(權赫昌, 복야공파, 36世) 제례위원장께서 별세하였다. 향년 86세. 고인은 대종회 제례위원과 제례위원장을 맡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향사를 봉행하는데 헌신해 왔다. 고인은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23세)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2024년 7월 16일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 서세 400주년을 기념하여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조선읍지 영가지와 용만 권기 학술발표회"에서 고인은 용만 선생 13세 후손으로서 "무더운 날씨에도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용만 선생은 영가지 외에도 효를 근본으로 삼고 몸소 실천하신 분으로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학문에는 분전에 침잠하고 예문, 법률, 지리, 외가잡설 등 달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지는 안동 선영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 산업포장 수상





권혁환 스킨블루대표이자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0월 23일(금) 정부포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권혁환 대표는 피부미용 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기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은 2014년 창립된 단체로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해외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 교육 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피부미용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권혁환 이사장은 2019년 대통령표창, 2025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안동권씨 대종회 부회장이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문경종친회 시조 묘소 참배



문경종친회(회장:권칠훈) 회원 20여 명은 지난 10월 4일(일) 7시 30분 문경을 출발해서 9시경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소재 능동재사에 도착했다. 회원들은 대종회 안동사무소 권오익 국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준비해 온 주과포로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낭중공 단소를 참배 후 능동재사를 둘러보고 현재 추원루 복원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담소를 나눈 후 시내 북문동에 소재한 삼태사묘로 향하면서 헌성금 10만원을 권오익 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일행은 태사묘로 이동해 삼태사 위패가 봉안된 묘우에 성배하고 해설사로부터 고려 개국공신의 업적과 태사묘의 유래를 자세하게 듣고 보물각 등을 관람하고 다음 목적지인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에 있는 오봉종택으로 향하였다.

회원들은 오봉종택을 둘러보고 후포로 가서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난 싱싱한 생선회와 해산물로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 4시경 문경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안동사무소 권오익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장학금 구좌 모집 안내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에서는 매년 우수한 후학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구좌를 후원받아 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후손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족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 구좌 :** 농협 301-0343-6793-41 예금주 :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4월 30일
○ **후원 금액 :** 1구좌 당 100만원(해당 장학금 수여는 후원자 명의로 지급)
○ **지급 시기 :** 2027년 5월 정기총회 시
○ **문의 사항 :**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4

후원자	구좌	금액	비고
권○○	1구좌	100만원	
○○ 종중	3구좌	300만원	100만원씩 3명에게 지급
업체명	10구좌	1000만원	100만원씩 10명에게 지급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이사장 권영창